



계룡산에 중악단. 나라의 위급함이 있을 때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서 묘향산에 삼악단, 계룡산에 중악단, 지리산에 하악단을 뒀다.

최연의 산 이야기<40> 계룡산 2

계룡산은 나라의 근심도 덜어주었다

계룡산(鷲龍山)은 우리 민족이 숭상해 온 성스러운 산이다. 신라시대에는 북쪽의 백두산(白頭山), 남쪽의 지리산(智異山), 동쪽의 금강산(金剛山), 서쪽의 묘향산(妙香山)과 더불어 중앙의 계룡산을 더하여 천제(天祭)를 지냈던 오악(五岳)의 하나였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성스러운 땅을 가리켜 '겨름'이라고 하였는데, 계룡이라는 이름도 '겨름'에서 나왔다. '겨름'이란 낱질을 벗긴 삼대(麻皮)를 의미한다. 삼대에서 유래된 지명은 여럿이 있다. '겨름'을 음역해서 계룡산의 '계룡(鷲龍)' 문경 계림령의 '계립(鷲立)' 경주 계림의 '계림(鷲林)' 등으로 표기했다. 의역(意譯)할 때는 마골령(마골령 : 계림령의 별칭)의 '마골(麻骨)' 마곡사의 '마곡(麻谷)' 등으로 표기했다. 계룡산은 풍수지리적으로 주봉인 상제봉(上帝峰)이 주산이 되고 동쪽의 금계산(金鷄山)이 좌정봉(左靑龍), 서쪽의 일룡산(日龍山)이 우백호(右白虎)를 이루고 있다. '계(鷲)'와 '용(龍)'과 '제(帝)'를 구비하고 있으니 계림(鷲林)에 군주(龍)가 제위(帝位)에 오른다는 풀이가 된다. 이처럼 계룡산은 성스러운 산. 군주(君主)가 제위에 오르는 산으로 숭상 받았다.

계룡산은 사방 어디에서 바라보아도 산세가 빼어난데 (택리지(擇里志)에서는 4대 명산(名山)으로 꼽고 있다. "산 모양은 반드시 수려(秀麗)한 돌로 된 봉우리라야 산이 수려하고 물 또한 맑다. 그리고 반드시 강이나 바다가 서로 모이는 곳에 터가 되어야 큰 힘(力量)이 있다. 이와 같은 곳이 나라 안에는 네 곳이 있다. 개성(開城)의 오관산(五冠山), 한양의 (漢陽)의 삼각산(三角山), 진잠(鎭岑)의 계룡산(鷲龍山), 문화(文化)의 구월산(九月山)이다." 이처럼 빼어난 산세에는 명찰(名刹)이 자리 잡고 있기 마련이다. 계룡산 서남쪽에는 신원사(新元寺)라는 고찰이 있다. 서북쪽에는 감사(甲寺)가, 동쪽에는 동학사(東學寺)가, 북쪽 기슭에는 구룡사(九龍寺)라는 대찰(大刹)이 있었는데 구룡사는 폐찰되고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있다. 신원사(新元寺)는 백제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신원사'는 '새롭게 으뜸이 된다'는 뜻인데 후천개벽(後天開闢)을 열망하는 민중의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런지. 신원사의 주산은 선인(仙人)이 무릎에 손을 얹고 단정히 앉아 있는 형상이고, 신원사 앞쪽에 있는 두 봉우리는 선인을 따

라다니는 동자들의 형상이다. 선인봉(仙人峯)과 동자봉(童子峯)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 신원사 터는 선인단좌형(仙人端座形) 명당임에 틀림이 없다. 신원사 부속 건물 중에는 중악단(中嶽壇)이라고 불리는 산신각(山神閣)이 있다. 본당(本堂)에 요사채까지 딸린 여느 사찰 규모와 같지만 이곳은 신라시대부터 산신제(山神祭)를 올린 곳이다. 나라의 위급함이 있을 때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서 3대 산신단(山神壇)을 설치했는데 삼악단(上嶽壇)을 묘향산에, 중악단(中嶽壇)을 계룡산에, 하악단(下嶽壇)을 지리산에 두었다. 조선 초기에는 태조 이성계가 이곳에 직접 와서 산신제를 지냈고 조선 말기에는 명성황후가 기어올라 가는 조선 왕조를 다시 일으키고자 산신께 큰 제사를 올렸다. 지리산 하악단은 터만 남아 있고, 묘향산 삼악단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 감사(甲寺)는 계룡산에서 제일 규모가 큰 가람인데 창건 당시는 '산하리 갑(甲)' 자였는데 의상대사가 '비뚤할 갑(甲)' 자로 고쳤다. 비뚤할 갑자는 처음, 첫째, 으뜸의 뜻도 포함하고 있다. 성스러운 기상이 으뜸으로 서려 있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감사 터의 형국(形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용형(龍形)이라고도 하고 금계형(金鷄形)이라고도 하고 자미원국(紫微垣局)이라고도 한다. 자미원이란 북두칠성 옆에 자리한 삼태성(三台星)으로 동양의 천문학에서는 천제(天帝)의 침궁(寢宮)을 일컫는다. 감사의 주산은 세 봉우리가 나란히 서 있는데 이것이 삼태성이다. 도인과 성자가 많이 나오는 터라서 신라시대에는 화엄(華嚴) 10찰의 하나로 명성을 떨쳤다. 동학사는 비구니 수행도량으로 학이 알을 품은 형국인 비학포란형(飛鶴抱卵形)이다. 주산인 삼불봉(三佛峰)이 크고 험한 학처럼 생겼고 맞은편에 알의 형상을 한 동그런 봉우리가 붙성 솟아 있다. 동학사 터는 본래 경허 스님이 움막을 짓고 수행하던 곳으로 그 기상을 이어 받아 지금도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정진 중이다. 구룡사는 상신 마을에 있었는데 지금은 절터에 마을이 들어서고 한쪽이 깨진 당간 지주가 절터임을 암시하고 있다. 상신마을은 9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다루는 형국인 구룡쟁주형(九龍爭珠形)인데 상신마을 한가운데 동그란 봉우리가 여의주이다.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신년 선물

"싸고 좋은 겔로퍼가 나왔는데, 끌고 갈 테니 한 번 구경 좀 하시죠." 싸고 상태도 좋더니 안 살 이유가 없었으나 연식을 물어보고서 주저하는 마음이 일었다. 1995년이다. 나이가 15살이 넘었지 않은가? "이거 가지고 있던 사람이 카센터를 하는데 꼼꼼히도 고쳐 놔더라고요. 엔진 소리 좋고 기어도 잘 들어가고 총동한 흔적도 없고, 한 4, 5년은 별 지장 없이 탈 수 있을 겁니다. 딱 보고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왔죠." 한때 공업사도 운영했고, 택시회사도 운영했으니 차를 보는 안목만큼은 믿어도 좋을 사람이었다. 함께 온 오 씨의 말을 따라 내가 운전대를 잡고 산봉우리 근처의 절 입구까지 올라가 보기로 했다. 4륜 기어를 넣고 바퀴로 전전지는 차체의 무게감과 구르는 힘을 전해 받으며 산 위로 차를 몰았다. 얼어붙은 길을 지나 경사가 심한 비포장 등성이 길로 접어들어 2단 기어를 넣고 가속페달을 밟았다. 눈이 쌓인 가운데 등성 등성 돌아난 돌들만 보이는 길을 차는 거침없이 올라갔다. 망경사에 올라 멀리 굽이굽이 물결치는 산맥들과 산 사이를 흐르는 강줄기와 장난감처럼 다가오는 집들을 바라보다가 다시 차를 타고 내려오는 길은 몸도 마음도 가벼워서 좋았다. 힘들이지 않고 무엇인가를 가볍게 한다는 것도 꽤 기분이 좋은 일이었다. "핸들이 좀 떨리더라고. 잘못하다 고속도로 같은 데서 큰 일 날 수 있단니까." 함께 온 오 씨가 미덥지 못한 현상을 얘기한다. 오 씨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보험료 외에 승용차 세금이 6개월에 30~40만 원이 나온다 하니 선택하기가 어려웠

'마음에 차지 않으니 갖고 가라'는 것도 병
마음이 정리되니 고마운 마음이 일었다

다. 트럭을 이용하면서 2~3만 원 세금을 내는 것과 비교하니 차를 살 마음이 덜어졌다. "세금이 비싸고 핸들도 문제가 있으니 뺐 2인승으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오 씨는 다른 걸 알아보라며 방향을 틀었다. 문제는 차를 가지고 온 장 씨였다. 장 씨는 카센터 사람이 잘 아는 동생이라며 연신 차 상태가 좋다고 얘기했다. 차를 다시 가지고 돌아가는 장 씨의 모습이 그려지니 못내 못할 짓을 하는 것만 같았다. 이더 관왕은 '지프차'가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고 했던 게 몇 주 전이었다. 아 내가 방과 후 학교 감사 등으로 바깥일을 하면서 차를 사용하게 되자 내가 움직일 방법이 만만치 않았다. 버스시간에 맞추다보니 길에 뿌려지는 시간도 많았고 내 필요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작년에 도서관 문예창작 강사로 1주일에 두 번 강의를 다닐 때도 차의 필요성을 누누이 느끼곤 했다. 작년과 올해 연이어 시도 때도 없이 내리는 눈도 나를 흔들었다. 눈이 녹다 얼어 산길이 빙판으로 변하는 일이 곧잘 벌어졌다. 때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집까지 오는 길에 모래를 뿌리곤 하면서 고를 지프차라도 하나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얼추 굳히게 됐다. 내 말을 잊지 않고 관왕아 보인 차를 직접 끌고 찾아온 사람에게, '마음에 차지 않으니 갖고 가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것도 병이지' 싶은 마음이 일었으나, 상대방이 나를 생각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근처에 닿는 결정을 내려야 마음이 나마 편할 것 같았다. 눈이 내려 길에 얼어붙은 날들 속에서, 트럭을 몰다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사고 하나쯤 방지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자동차 값 200백만 원은 빠질 일이었다. 마음이 정리되니, 신년 선물로 '지프차'를 구매한 사람에게 뒷배가나고 고마운 마음이 일었다. (지난 1년 동안 못난 글을 읽어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산들산들 봄바람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인

불기 2555년 광기 4344년 서기 2011년

백초스님의 핵심래정택일지

辛卯年 신묘년

새롭게 다시 쓴 한국 최초의 신개념 택일지 운세 비법 출간!
매일 매일 운세 보는 법 공개!!

365일 매일 한장씩 매일운세!
한눈에 훑어볼수 있는 래정비법!

베스트셀러 전국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4×6배판/ 칼라제본/ 456쪽/ 정가 20,000원
문고판(포켓용)/ 칼라제본/ 456쪽/ 정가 10,000원

著 白超 백초스님

백초귀장술

조상을 제대로 뵈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베스트셀러 진입!

귀신뵈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쓱쓱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著 白超 백초스님 ④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⑤ 신국판/양장본/712쪽/정가 120,000원

白超律曆學堂 입금 계좌 농협 023-02-500940 예금주: 임현주

전화 (02)3667-4446, 010-3813-4443